

“이재명 리더십과 ‘엇박자’ 난 전북 경선”

**장기철 “정청태 전북 민심 들어야”
 이원택 의혹 감찰 “어물쩍” 비판
 “당 오만과 지역 토호 카르텔 합작
 경선 흥행 실패” 직격**

장기철 전 민주당 정읍지역위원장은 28일 ‘민주당 전북지사후보 경선’과 관련, “정청태 대표는 전주 선술집에서 여론을 들어보시기 바란다”고 정 대표를 직격했다.

장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전북지사 후보 경선과정의 진실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의원부터 도지사 후보까지)당내 경선은 축제가 되고, 승복하는 결실을 맺어야 하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공천 과열음이 그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전 위원장은 “이원택 후보 측의 식사비 대납 의혹 모임에 저도 20분가량 있었다”면서 “중앙당의 감찰이 두 번이나 있었지만 저한테는 전화 한번 없었다. 제3자적 관점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사람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어물쩍 넘겼다”고 정 대표를 비판했다.

이어 “그날의 (식사비 대납)진실은 이렇다”며 식사 장소에 참석하게 된 배경과 참석을 부탁한 청년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그는 “한 청년당원으로부터 이원택 도지사 후보님의 지지모임이 있는데, 누구한테도 알리지 말고 참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일종의 지지 모임의 성격이라 식사가 마무리될 때쯤인 오후 7시에 잠깐 들렀다”고 참석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장에 참석했을 때, 청년들은 이원택 의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며 “이 원택 후보는 도지사 후보로서 ‘내발적 발전 전략’ 등 자신의 포부를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청객인 제가 오래 있을 분위기는 아니었다”며 “나오면서 식사비는

누가 낼까? 걱정이 되기도 했었다. 식사비는 도의원이 (이원택)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카드로 결제할 것이다. 당초 모임도 두차례 취소되었다가 이 의원의 일정에 맞춰 조정된 것이라는 청년 당원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한 “사건이 불거지자 이 후보에 대한 중앙당의 긴급 감찰은 면피용 ‘셀프 감찰’로 그치며 경선이 강행됐다”면서 “이런 막무가내식 경선은 전북의 경우 품기만 해도 (당선)된다는 당지도

부의 오만함과 당에 대해 절절 때는 후보자들, 지역 토호세력의 카르텔 합작품”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장 전 위원장은 “이원택 후보에 대한 관대한 감찰은 김관영 지사를 번개 불 제명과는 결이 달랐고, 안호영 후보의 경선 연기 주장을 단호하게 묵살, 정(청태)대표에 대한 오해로 이어졌다”며 “지역 언론도 이재명 리더십과 맞지 않은 경선이라고 혹평하고 있다”고 정 대표를 직격했다.

/서울=김영목기자



문화사업 현장 점검 “민간소비 활성 박차” 28일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전북문화관광재단을 방문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김관영 지사, 문화·주거사업 점검 문화관광재단·개발공사 방문

**청년창업·미식관광 등 신규 점검
 반값주택 등 주요사업 ‘속도’ 강조
 민간소비 위축 대응 현장 행정 강화**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8일 전북문화관광재단과 전북개발공사를 방문,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 사태 장기화와 고물가로 위축된 민간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관광 및 건설 분야에서 민간 소비지출과 연관성을 지닌 두 기관의 사업 진척 상황을 직접 살피고 현장 밀착 행정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먼저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문화관광재단을 찾아 전북이 보유한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전북형 웰니스 모델 고도화와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성과가 산업·경제와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 추진도 주문했다.

/장정철 기자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탄력’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사업비 3335억 시비 200억 추가 승인
 의회 동의 거쳐 예산 지원 절차 추진**

군산시 보건소는 시민의 오랜 숙원인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조건부 승인)함에 따라, 2028년 10월 적기 개원을 위한 확고한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사업은 코로나19와 의정 갈등에 따른 병원 재정 악화, 건설 자재비 급등, 필수 의료 시설 확충 등 삼중고가 겹치며 총사업비가 3,335억원으로 뛰어올라 난항을 거듭해 왔다.

시는 이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을 조속히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해, 시비 200억원 추가 투입의 타당성 검토를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바 있다.

/군산=지승길 기자

이번 행정안전부 심사 결과,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한 시비 200억원 추가 투입은 타당성을 인정받아 최종 승인되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추가적인 지방비 부담이 없도록 협의 후 사업 추진’이라는 조건을 부여했다. 해당 예산은 향후 군산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전북대학교병원과 건립사업 변경 협약을 체결하여, 단순한 병원 건립을 넘어 지역 주민을 위한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 등 실효성 있는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전북대학교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병원이 적기에 준공하고 개원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창의체험관서 ‘어린이날 대축제’ 개최

**놀이·AR·로봇 등 6개 테마 체험
 가족 참여형 공연 프로그램 ‘풍성’
 아동권리현장낭독 등 기념식 진행**

전북도는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5월 5일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일원에서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기는 ‘어린이날 대축제’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체험 중심 축제로, 공연과 놀이, 창의체험이 어우러진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

된다.

행사는 전북어린이예술단 식전공연으로 시작해 기념식에는 아동권리현장 낭독, 어린이날 노래 제창, 주요 내빈과 어린이가 함께하는 기념 퍼포먼스 등 어린이날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체험마당은 ▲즐거이GO ▲꿈꾸GO ▲체험하GO ▲웃GO ▲알아보GO ▲공연보GO 등 6개 테마로 운영된다.

“즐거이GO”에서는 미로바운스와 컬링, 협동 검정기, 가상 스포츠 등 몸으로 즐기는 놀이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꿈꾸

GO”에서는 로봇·증강현실 기반 창의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체험하GO’에서는 상설 창의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웃GO’에서는 카타리베로와 열공공방 등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알아보GO’에서는 소방안전·경찰 체험, 아동 마음건강 캠페인, 전파·증강현실 체험 등 유관기관 협력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공연보GO’에서는 어린이 댄스·노래자랑과 뮤지컬 갈라쇼, 인형극, 마술공연, 미디어퀴즈쇼 등 다채로운 공

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도는 이번 축제가 놀이와 체험을 넘어 어린이의 권리와 꿈, 가족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한 전북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웃고 배우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며 어린이날의 의미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다시, 사람이 하늘이다”

제59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

2026. 5. 9(토) ~ 11(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일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1일차 축하공연 5. 9(토) 18:00



손태진 조재즈 먼데이키즈 경서

2일차 축하공연 5. 10(일) 16:30



허각 신동재 김예슬 이유정

주최 정읍시 주관 동학농민혁명기념제추진위원회

전북도 “먹거리 복지망 촘촘히” 위기가구 대응 강화

노홍석 부지사, 익산 현장 방문 그냥드림·나눔곳간 운영 성과 점검 생필품·먹거리 지원체계 확인 현장 의견 청취 사각지대 해소 추진

전북도가 위기가구 먹거리 지원강화를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도는 28일 노홍석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익산 행복나눔마켓·뱅크를 방문해 ‘그냥드림’ 기초사업장과 ‘다리로움나눔곳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로 먹거리와 생필품 지원이 필요한 도민에게 신속히 대응하는 현장 복지체계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노 행정부지사는 익산시와 운영기관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뒤 지원 물품 구성과 이용절

차, 상담 및 복지 연계 체계를 살폈다. 이어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계하는 현장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냥드림’ 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게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우선 지원하고, 이후 상담을 통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복지기관 서비스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이용자 6,560여 명 가운데 1,370여 명 상담을 진행했고, 이 중 110여 명이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등 실제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등 단순 지원을 넘어 복지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냥드림 익산 사업장은 ‘다리로움나눔곳간’과 함께 운영되고 있다.

다리로움나눔곳간은 익산시가 2021년부터 자체적으로 위기 시민에게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부받은 물품을 매장 형태로 비치하고



<사진=전북도>

이용자가 필요한 품목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5년 말 기준 이용자 1만8천여 명, 지원 규모는 약 9억 원에 달해 지역 내 위기가구 지원 창구로 기능하고 있다.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복지는 도움이 필요한 도민에게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에

서 즉시 지원하고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체계를 더욱 촘촘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군 및 복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위기가구 지원을 확대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윤준병,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 운영’ 법안 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시간대별 속도 조정 근거 마련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일몰적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정을 어린이 보행량과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통행 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규정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규정’은 어린이 보행자의 유무나 사고 위험성의 시간대별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령체계로는 어린이 보행자의 유무나 사고 위험성의 시간대별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정된 구역 내에서 일률적인 속도 제한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어린이의 통행이 거의 없는 평일 심야 시간대나 새벽 또는 주말 및 공휴일에도 시속 30km 제한이 고정되어 있어 간선도로의 원활한



윤준병 의원

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며, 사고 위험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도 일괄적인 규제 지속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하여 어린이 안전 보장이라는 본질적 가치가 유지되, 어린이 보행량과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스쿨존 야간 및 새벽, △주말,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 △어린이가 왕래하지 않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대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어린이 안전이라는 본질적 가치는 철저히 지키되,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와 장소에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보행량과 사고 위험성 등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법 집행의 합리성을 확보함으로써 어린이 보호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고, 도로 운영의 효율성을 조화롭게 높여 나가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은닉재산 추적 체납액 2억 7천만원 징수

체납자 386명 금융자산 은닉 적발 금제테크 등 저능형 체납 집중 조사 첨단 추적기법 도입 상시 조사 강화

전북도는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 저능형 은닉재산 기획조사를 통해 고질 체납액 2억7,129만 원을 전격 징수했다.

또 14억2,883만 원 규모 자산을 압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최근 자산 가치가 급등한 금 제테크 등 금융자산을 교묘히 은닉한 사례를 집중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사 결과 총 386명의 체납자가 보유

한 대한 은닉 자산을 확인해 자진 납부 유도 및 추심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징수를 완료했다.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으며,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등도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힘을 보탰다.

전북자치도는 이번에 압류한 14억 원 규모의 자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납부

도움을 이어가는 한편, 끝까지 미납할 경우 법령에 따라 공매 처분 등 강력한 후속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또 이번 기획조사를 기점으로 저능형 체납에 대한 상시 조사 체계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등 고도화되는 은닉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추적 기법을 지속적으로 도입 운영할 방침이다.

/장정철 기자

전북, 청년농 ‘성장 사다리’…전주기 지원 본격화

진입·정착·성장 단계별 맞춤형 3500억 규모 투입 영농 기반 강화 스마트팜·교육·융자 등 종합 지원

전북도가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성장을 위해 진입-정착-성장을 아우르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본격 추진한다.

도는 청년농이 예비 단계부터 현장 정착, 전문 경영인 성장 단계까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착지원,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진입 단계 지원을 위해 33억 원을 투입해 미래 농업인력 양성,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 등 7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농식품부 시범사업으로 28일부터 30일까지 청년 예비농업인 19명을 대상으로 ‘예비농업인 역량강화 시범교

육’을 실시해 농지제도과 농업자금, 회계 교육부터 선도농가 현장 견학까지 실무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영농에 진입한 청년농의 정착 지원도 확대한다.

도는 3,252억 원을 투입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며 영농 정착자금 지원과 융자 지원, 농지·시설 임차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 기반 마련을 뒷받침한다.

성장 단계에서는 스마트팜 조성과 청년농 기술혁신·마케팅 지원 등 7개 사업에 310억 원을 투입해 청년농의 경쟁력 강화와 스마트농업 기반 확대도 지원한다.

도는 이번 지원체계를 통해 청년농의 초기 진입 부담을 낮추고 정착 기반과 성장 사다리를 함께 강화해 미래 농업



지난 17일 김관영 지사 장수 임대형 스마트팜 방문

<사진=전북도>

인재 육성 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청년농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전문 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입부터 성장까지 전 주기 지원체계를 촘촘히 운영하겠다”며 “현장 중심 정책을 통해 청년이 찾는 농업·농촌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골프장 농약·토양오염 실태조사 간담회

골프장 28곳 농약잔류량 검사 추진 토양오염 152개소 대상 실태조사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8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도 및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골프장 및 토양 분야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와 토양오염 실태조사 관리체계를 공유하고, 올해 조사계획과 시료채취 등 현장 실무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골프장 분야는 도내 28개소를 대상으로 건기(4-6월)와 우기(7-9월) 연 2회에 걸쳐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골프장 내 토양과 수질이며, 총 27종의 농약 성분을 분석해 사용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검사 결과 고독성 농약과 잔디 사용 금지 농약은 단 한 건도 검출되지 않았으며, 일부 검출된 농약도 모두 저독성 기준 이내로 확인되는 등 전

반적으로 안전사용 기준이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도 전반의 토양환경 관리를 위해 추진된다. 올해는 4월부터 10월까지 총 152개소를 대상으로 23개 항목을 조사하며, 산업시설과 주유소 등 오염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노후·방치 주유소 등 58개 지점을 중점오염원으로 지정해 일반 조사와 구분된 집중 관리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153개 지점 조사에서는 모든 지점이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로 나타났으며, 벤젠·톨루엔 등 12개 주요 항목은 전 지점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료채취 절차와 조사 방법에 대한 실무교육이 함께 진행됐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향후 정책 개선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전경식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현장 중심 조사와 선제적 오염원 관리를 통해 환경안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환절기 감기 예방법

일교차가 큰 환절기일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감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내온도와 습도 적절히 유지
온도 20~22℃, 습도 50~60%

외출 후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채소와 과일 충분히 섭취하기

따뜻한 물 충분히 마시기

'2026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 개최

5월 8일부터 12일 개최 월드컵광장·덕진공원 일원 '시민이 만드는 하나의 정원'

대한민국 정원산업 중심도시 전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정원 축제가 펼쳐진다. 전주시는 내달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전주월드컵광장과 덕진공원 일원에서 '2026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 박람회는 6화째를 맞이했으며 올해에는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로 개최된다. 올해 전주정원산업박람회를 통해 '정원도시 전주'라는 브랜드를 한층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람회는 '한바탕 전주 정원마당(부제: 시민이 만드는 하나의 정원)'을 주제로

전년 대비 행사 규모와 내용이 한층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박람회 큰 차별점으로는 '산업 중심의 박람회'라는 점이다. 박람회 기간 월드컵광장에서는 국내 총 146개 정원 관련 업체가 참여해 식물 소재와 정원용품, 최신 조명 자재와 설비 기술을 총망라해 선보인다. 또 실질적인 B2B 교류가 이뤄지도록 월드컵광장 내 전주국제제로스포츠센터에 비즈니스라운지도 운영된다. 비즈니스라운지에서는 지자체·공공기관, 관련 협회 등 정원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기업과 연계하는 등 맞춤형 산업 투어도 진행된다. 시는 우수업체와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을 보유한 청년 업체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멘토링도 계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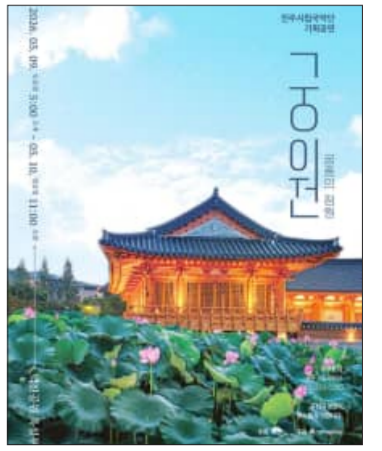
정원도시 전주 컨퍼런스에서는 △한국정원협회와 '정원 식물과 산업, 미래전망' △한국조경협회의 '도면 밖의 조정, 현장의 언어' △한국식생학회의 '탄소중립시대를 위한 식생 기반 정원' 등을 주제로 최신 정책과 기술, 시장 동향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도 펼쳐진다. 이를 통해 시는 실질적인 거래와 협력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박람회의 핵심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박람회로 기획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 전역에는 총 35개의 시민참여정원이 조성되며, 조정전문가와 초록정원사, 시민정원사가 등 지역 정원 인력과 협력해 주민이 설계부터 조성, 유지관리까지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박람회 행사 공간으로 새롭게 선보이

는 덕진공원 전동정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성을 갖춘 다양한 정원이 조성·전시돼 방문객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더불어 국립정원문화원과 전주시가 공동 주관하는 코리아가든쇼(작가정원)는 '기후변화 위기, 한국의 전통정원'을 주제로 한 작품 공모를 거쳐 5개 정원이 조성된다. 이외 박람회에는 △캠크닉(캠핑+픽닉) △산림치유존 △자연힐링존 △정원해설 투어 △정원 토크쇼 △음악회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즐길 거리도 마련된다. 한편 유관기관(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과 협업해 시민들의 정원생활을 돕는 밀착형 체험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된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립국악단 다채로운 국악 공연

덕진공원 특설무대서 5월 9일, 10일 2회 연주

전주시립국악단은 덕진공원 특설무대 통한 전통음악을 내달 9일 17시~10일 11시 2회 연주한다. 전주시립국악단 공연은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국악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9일 공연은 △관현악 합주 '만파정식'으로 문을 연다. 이어 △정재무용 '무고' △현악합주 '청년만세' △여창가곡 '우락' △가야금병창 '고고천변' 등 전통 성악과 기악, 무용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이와 함께 △거문고 제주 '한갑득류 거문고산조' △사물놀이 '삼도사물놀이' 등 역동적인 연희 무대를 통해 전통예술 특유의 흥과 에너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10일 공연은 △관현악 합주 '수



제천' △현악합주 '현악도드리' △한국무용 '임춘' △여창가곡 '한계락' △가야금병창 '신사철가' △대금 제주 '서용석류 대금산조' △한국무용 '태평무' 등 전통예술의 깊이와 화려함을 아우르는 무대로 전주시립국악단 특설무대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공연은 별도의 입장료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청년 정책 누리집 '청정지대' 새 단장

맞춤형 플랫폼 도약 시 정책·사업 참여 기회 제공

전주시는 전주청년온라인플랫폼 '청정지대'(www.jeonju.go.kr/youth)를 새롭게 단장해 29일부터 정식운영에 들어간다. 청정지대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전주시 청년정책 정보 제공 창구로 운영되고 있다. 관련해 연간 방문자 수는 2020년 12만

명에서 지난해 30여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청정지대' 개편 과정에서 기존 운영 성과와 함께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정책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했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청년 일자리 채용 정보 연계 서비스 강화 △청년인재 DB, 정책 제안 등 참여·소통 확대 △청년층 예비부부를 위한 공공예약장 안내 시

스템 구축 △이용자 중심의 직관적인 메뉴 구성 등이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민간·공공) 채용 정보를 주기적으로 연동해 청년들이 다양한 취업 기회를 청정지대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과 청년 구직자 간의 연결을 활성화하고,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청년인재DB 구축을 통해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행사 등 원하는 정보를 제

때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시의 다양한 정책·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정책 제안'은 청년들이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창구로, 다른 청년이 제안한 정책에 공감을 표시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공예약장 정보를 별도 카테고리로 신설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점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예수병원 '제2주차장' 준공식 성료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

전주예수병원 내원객들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한 '제2주차장' 건립이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에 지난 27일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으며 준공식 1부는 감사 예배를 시작으로 건축 경과보고, 테이프 커팅식, 안전한 시공을 이끈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 등이 진행됐다. 제2주차장은 연면적 약 2,299평(7,599㎡) 부지에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 규모의 철골조로 건립됐다. 따라서 총 206대의 차량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제2주차장 완공은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 사업인 '전북권역 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통합 재활병원)' 건립을 본격화하기 위한 필수 대체 주차장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예수병원은 향후 기존 주차장 부지에 2027년 말까지 지하 3층~지상 7층에 150병상의 입원 병동과 20병상 규모의 낮 병동으로 연면적 1만7천 103㎡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로 개원 128주년을 맞은 호남 최초의 민간 의료 선교 병원인 전주예수병원은 환자 중심의 지속적인 원내 인프라 확충과 첨단 스마트 의료 시스템 도입을 통해 혁신적인 도약을 이어가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50+ 어른학교' 수강생 모집

50세~64세 전주시민 대상

전주시가 50+ 세대의 새로운 배움과 사회참여 지원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에 전주시평생학습과는 '2026년 인성후반기 50+ 플랫폼, 지금 시작하는 50+ 어른학교 시즌1'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50+ 어른학교는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50~64세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운영

된다. 프로그램은 크게 △일·활동 탐색 과정 △일상 기술 과정 △커뮤니티 중심 과정으로 구성됐다. 일·활동 탐색 과정은 △오디오북 녹음과 낭독 활동으로 이어지는 '나의 목소리를 만나는 시간, 낭독 10기' △전주의 역사와 음식문화를 배우고 스토리텔러 활동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전주 역사&음식 문화 영어스토리텔러 과정' △노후 준비와 재무·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국민연

금공단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과정이 마련됐다. 또 일상 기술 과정은 △생활 속 목공 기술을 배우고 지역사회 기부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즐거움 생활가구 만들기' △50+ 세대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50+ 커리어 전환을 위한 AI 활용 교육'이 운영된다. 커뮤니티 중심 과정은 전주 인근 숲에서 자연을 체험하며 마음 챙김과 숲 체험 활동을 경험하는 '힐링 포레스트 숲 체험

활동' 볼펜과 여름편이 진행된다. 주요 과정은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전주시평생학습관과 전주대 자유관, 전주인근 숲 등에서 운영되며, 과정별 모집 인원은 10명에서 20명 내외다. 참여를 희망하는 50+ 세대는 전주시평생학습관 누리집(e.jeonju.go.kr)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지만 과정별 재료비는 별도이며 개강일에 납부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제2회 청·장년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5월 14일 개최 구직자 현장면접 진행

전주시는 '2026년 제2회 청·장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2026년 제2회 청·장년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청·장년 구직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된다. 행사는 중소기업 채용 담당자와 55세 이하 취업 희망자들에게 현장 면접 중심

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관련 행사는 내달 14일 14시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특히 채용행사에는 △파인로그 주식회사 △썬한우물 △푸드그룹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구에프에스 등이 참여해, 식품 생산직과 소규모 택배준비원, 자동차 부품 조립원 등 다양한 직무에서 인력을 모집하게 된다. 시는 구직자 사진 접수를 통해 구직자

에게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준비 지원 등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하고, 사전 매칭으로 구직자와 기업 간 효율적인 면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해마다 대규모 취업박람회보다 취업 성공률이 높은 맞춤형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는 총 4회에 걸쳐 청·장년층 구직자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기업은 구인난을 해소하고 청·장년층 구직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구직자가 참여해 꼭 취업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내달 13일 18시까지 전주시 일자리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전북경찰청 '전주국제영화제' 현장점검

인파 관리 중심 강화 관람객 이동 동선 분리 등 확인 재난·돌발상황 신속 대응 각오

전북경찰청은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을 앞두고 다중모집 상황에 대비한 인파 안전관리 및 대테러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주요 행사장 일대 현장점검을 강화했다. 점검은 영화제 기간 중 많은 관람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영화의거리, 주요 상영관, 개·폐막식 행사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중점으로는 행사 전반의 안전관리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또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람객 이동 동선 분리,

구역별 인원 분산 관리, 비상대피로 확보 상태 등을 면밀히 확인했다.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통제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경찰특공대 및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긴급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 체계와 공조 대응 절차를 점검하는 등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감상형 공공안전부장은 "전주국제영화제를 찾는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인파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각종 재난 및 돌발상황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주 진북동 자생단체 연합 아동들에 희망 전달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순)가 오는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 아동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달콤한 추억을 선물했다. 이번 나눔은 '마을 어른들이 함께 돌보는 행복한 진북동 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하여, 통우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사랑의울타리봉사단, 자율방범대 2초소 등 진북동 주요 자생단체들이 뜻을 모아 연대해 의미가 크다. 정성것 준비된 과자 세트는 관내 아동복지시설인 슬로몬지역아동센터, 소망의 집 그룹홈 등 3개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전달되어 아이들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또 3명의 아동에게는 각 2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정소민 기자



김종순 진북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 어른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명옥 진북동장은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행복한 진북동 만들기 위해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사진=전북대학교병원>

전북대병원발전기금 유준호 원장 1천만원 전달

유준호 리브스성형외과 원장 후배 양성 및 의학 발전 힘 보태

리브스성형외과 유준호 원장이 전북대병원 발전 위한 발전기금 1천만원을 28일 전달했다. 유 원장의 발전기금 기부는 후배들의 성형외과의 의학적 발전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기금은 성형외과 지정 기부금으로 관리되어 관련 분야의 연구 및 교육 지원 등에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유준호 원장은 전북대병원에서 인턴과 성형외과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임의사로 근무하며 풍부한 임상 경험을 쌓았다. 현재는 전주 리브스성형외과 원장으로서 지역사회 보건 의료 발전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그는 수련과 임상의 기반이 된 전북대병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헌신으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전북도 바이오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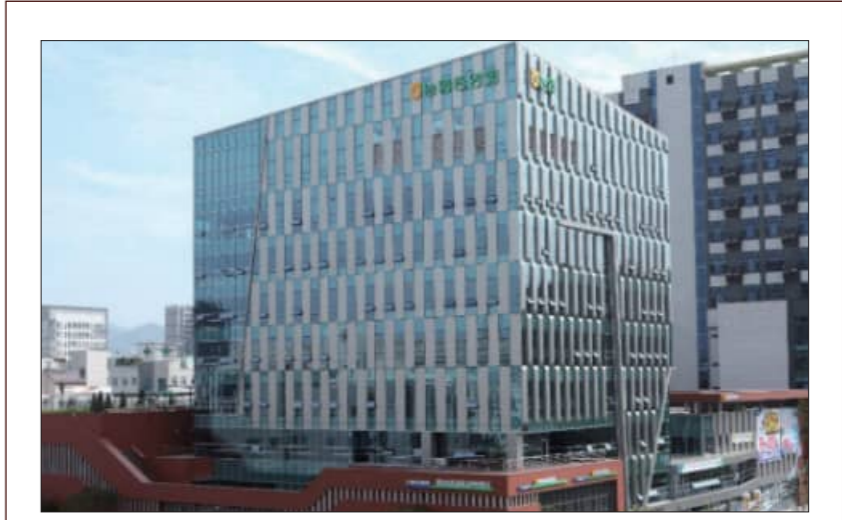
'바이오 코리아 2026' 도내 기업 9개사 참가 글로벌 협력 기회 모색

전북도 국내 대표 바이오산업 전시회 바이오코리아 2026에 도내 유망 바이오 기업 9개사가 참가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에 나선다. 참가 기업은 △삼아제약 △바스젠바이오 △바이오텔로직스 △나무숨 △

제펫 △큐에이치바이오 △유스바이옴 로벌 △주영바이오 △에어랩 등 총 9개 사이다. 행사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특히 보건산업 분야 국내외 전문가와 기업이 참여하는 국제 비즈니스 행사로서 최신 산업기술 동향과 협력 기회를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전북도는 행사 기간 '전북홍보관'을 운영해 도내 기업의 우수 기술과 제품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참가하는 기업들은 코·호흡기 의료기기, 기능성 식품, 재생의료 및 세포치료제, 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혈액 점도 분석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 기간 중 기술 상담과 파트너 발굴이 병행돼 실질적인 사업 성과 창출이 기대된다. 특히 전북홍보관에서는 국내 유일의 해외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유럽연구소와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준비한 '호라이즌 유럽

(Horizon Europe)' 과제 기획 미팅이 별도로 진행된다. 이번 미팅을 통해 EU 최대 연구·혁신 프로그램 참여 확대와 국제 공동연구 기반 구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2024년 10월 KIST 유럽연구소 내 '전북 바이오기술협력센터(GBC)' 개소 이후 레드 바이오 분야 전략산업 육성 위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과 글로벌 기술인재 육성, 선진 R&D 기술 확보 및 공동 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전북농협 고향주부모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농심친심 운동 전파 김경리도지회장은 "내 고향 발전과 소멸위기 농촌을 지키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손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제도 홍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북농협(총괄본부장 김성훈)과 고향주부모임전북도지회(회장 김경리)는 지난 27일 전주 관내 하나로마트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실시했다. 홍보행사에는 고향주부모임 전북 시군회장 10여명과 전북농협 임직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고향사랑기부제 설명과 참여방법이 담긴 팸플릿과 전복살을 배부하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며 농심친심 운동 전파에도 힘썼다. /정소민 기자

신건일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사장 취임

"전기재해 변화 선제 대응... 안전망 강화할 것"



신건일 부사장 그는 또 기술고시 36회로 공직에 임문해 재직 중 변리사 자격을 취득했

으며,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환경피해구제과장,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등을 역임한 환경·안전 정책 전문가다. 신 부사장은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는 친환경 에너지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전기재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공사는 신 부사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안전을 선도하는 전문가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 부사장은 28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임직원들과 취임 인사를 갖고, 2년의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정소민 기자

국민연금공단, 공공기관 동반성장 '최우수'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 실질적 상생 성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받았다. 공단은 2021년 이후 단 한 차례의 등급 하락 없이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

하며 동반성장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11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한 한국중부발전(주)을 제외하면, 이번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체 133개 평가대상 기관 중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해 단 9개 기관(상위 약 6%)뿐이다. 동반성장 평가는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동반성장 역할 수행을 유도하고 상생문

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또 △공정거래 확립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 노력 활동 전반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종합 심의해 최우수, 양호, 보통, 개선 필요 등 5개 등급으로 공표하는 평가다. 공단은 계약·비계약 평가 및 협력업체 체감도 조사 등 모든 평가항목에서 고른 성과를 거뒀다. /정소민 기자

특히 공단은 '결재환경 개선', '기금출연 및 지원'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 등 항목에서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인정받았다. 공단은 이외에도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개척 노력, 디지털 마케팅 교육 지원, 협력사 대상 공단 복지시설 개방 및 안전용품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협력사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쓰고 있다. /정소민 기자

2026년 4월 전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

4월 동향 및 5월 전망 4월 전북지역 제조업 기업경기지수는 100.0으로 전월대비 0.9p 상승, 5월 전망지수(98.2) 또한 0.1p 상승으로 나타났다. 구성지수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자금사정(+1.0p), 생산(+0.4p), 임용(+0.2p), 신규수주(+0.2p)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4월 전북지역 비제조업 기업경기지수는 82.3으로 전월대비 0.5p 상승, 5월 전망지수(83.4) 역시 1.6p 상승세를 보였다. /정소민 기자

농진청, 사과 신제품 전문생산단지 확대

생산·유통·판매 연계 신제품 시장 안착 유도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사과 신제품의 안정적인 보급과 시장 안착을 위해 지역 특화 전문생산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우리 사과 품종 보급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사과 재배 적지가 북상하고, 국내 사과 재배의 69%가 영남 지역에 집중돼 있어 재배지 분산과 품종 다양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 신제품은 초기 소비자 인지도 부족과 재배 기술 부족 등으로 시장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보급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지방자치단체, 유통업체와 협력해 신제품 재배 적지

에 지역 특화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연계한 협력 체계를 구축, 국산 사과 신제품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지역 특화 전문생산단지는 생산자, 유통업체,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체계로, 생산자는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재배해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업체는 안정적인 물량 확보와 공동 선별·출하를 통해 시장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지자체도 지역 특화 품종의 공동 상표 육성으로 농업 소득 증대와 지역 인지도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전문생산단지를 2023년 9헥타르(ha)에서 지난해 22헥타르(ha)까지 확대했고, 올해 59헥타르(ha)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평면 수형, 기계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재배 대응 등을 골자로 하는



<사진=농진청>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조성 사업과 연계해 신제품 재배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육성 사과 품종 보급률을 2025년 23.8%에서 2030년 35% 이상으로 높여, 외국 품종 의존도

발명진흥회 전북지부 'IP창업존' 참여자 모집

내달 6일까지 접수 교육 과정은 29일부터 5월 6일까지 이메일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지역지식재산센터 공식누리집(www.ripco.org/pms)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정호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의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내 우수 창업기업 육성과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미래차 모빌리티 산업 중장년 일자리 창출 협력

전북 미래차 모빌리티 산업 인력난 해소와 중장년 일자리 창출 위한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북중장년내일센터-전북산학융합원은 지난 27일 전북산학융합원에서 전북 미래차 모빌리티 산업 스마트 안전 전문 인력 양성 및 중장년 일자리 창출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스마트 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전북 미래차 모빌리티 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스마트 제조 교육 공동 기획 및 운영 △중장년층 대상 직무역량 강화 및 재취업 지원 △'현장 면접의 날' 공동 운영 △구인·구직 정보 공유 및 채용 사후관리 등 다양한

에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전망이다. 특히 양 기관의 협약은 구직자들에게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첫 실천 방안으로 전북중장년내일센터는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전북산학융합원 교육장에서 중장년 구직자 20여명을 대상으로 '미래모빌리티산업 EV 미래차 스마트 안전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운영한다. 과정은 기업의 실제 수요를 반영해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 중심의 특화 교육으로 구성됐다. 특히 30일 취업 연계 위한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와 협



력해 사전 취업 컨설팅을 실시한 뒤 일 자 간 1:1 현장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 다. /김영태 기자

전주중산신협 '2026년 조합원 교육'

조합원 참여의식 강화 우리진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조합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리양노 이사장은 "조합원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협동조합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중산신협은 3월말 기준 자산규모 약 4400억원, 조합원 수 약 16,800명을 보유한 지역대표 중견조합으로 순자본비율 7.24%의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조합 종합경영평가에서 총 16회에 걸쳐 경영대상·경영최우수상·경영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영태 기자

황호진 핵심 참모진, 유성동 지지 선언

“정치공학적 단일화 반대”... 비서실장 등 5명 캠프 합류

황호진 전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의 핵심 참모진이 이남호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에 반발하며 유성동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황 전 예비후보 캠프 비서실장과 정책·공보 등을 담당했던 참모진 5명은 2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예비후보 캠프 합류를 공식화했다.

이들은 “황 전 예비후보와 이 예비후보의 연대는 유권자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세 대결 목적의 정치공학적 단일화”라며

“대학 총장이나 교수 출신이 아닌, 초등학교 사 14년 경력을 바탕으로 일선 학교의 인성교육을 책임질 도덕적인 인물이 필요하다”며 유 후보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유성동 예비후보는 “독단적인 단일화 결정으로 깨졌던 ‘정책-혁신 연대’의 정신이 참모진의 합류로 되살아났다”며 “특히 중등교육 전문직 인사의 합류로 캠프의 정책적 약점을 보완했다”고 평가

했다.

유 예비후보는 선거 캠프 명칭을 ‘젊은 교육감 열정캠프’로 확정하고, 세 대결에 매몰되지 않는 정책 중심의 선거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유성동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배신과 야합 대신 오로지 좋은 교육정책 발굴에 집중해 품격 있는 정책 대결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 다함께돌봄센터 ‘대기 대란’

신도심 수요 쏠림 심화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별 수요 불균형으로 인해 신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심각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 신도심 일부 센터는 대기 인원이 정원과 맞먹는 수준인 반면, 상당수 농어촌 지역은 센터 자체가 없어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회 김민전 의원실이 요구한 ‘2026년 전북자치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 자료를 보면 이 같은 쏠림 현상이 드러났다.

지난 3월 개학을 기점으로 전주 신도심 지역의 돌봄센터는 20명 정원에 두 배가 넘는 43명이 몰렸다. 이로 인해 수용 인원을 초과한 20여 명은 당장 입소하지 못한 채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했다. 인접한 다른 센터의 상황도 비슷해, 20명 모집에 36명이 지원하면서 16명이 순번

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농어촌 지역의 돌봄 인프라는 열악한 실정이다. 임실군과 고창군 등 도내 상당수 읍·면 지역은 센터 설치 현황이 ‘없음’으로 집계됐다.

이는 수요가 밀집된 도시 지역의 공간 부족 문제와 인프라 자체가 전무한 농촌 지역의 소외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해당 통계는 입소 경쟁이 가장 치열한 3월 기준 자

료이며, 현재는 대기 아동들을 늘봄학교나 인근 지역아동센터로 적극 연계해 대기 수요를 대부분 해소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농어촌 지역의 센터 부재 지적에 대해서는 “임실군 등은 전체 아동 수가 적어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늘봄학교만으로도 방과 후 돌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지자체 차원에서 판단한 것”이라며 “인프라 부족에 따른 단순한 방치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춘향제 밴드 경연대회’ 본선 진출팀 확정

내달 1~2일 본선 및 결선

남원시가 주최하고 춘향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제96회 춘향제 전국 밴드 경연대회 “풍ROCK을 울려라!”의 본선 진출 14팀이 최종 확정됐다. 남원시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총 119팀이 참가 신청을 하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최종 선발된 본선 진출팀은 ▷안락밴드 ▷나타샤 ▷ON THE ROCK(온더락) ▷블랏블(Blue is not blue) ▷Sorted(솔티드) ▷LIF ▷FLEET(플릿) 등 총 14개 팀이다. 이들은 메탈, 록, 팝 등 폭넓은 장르를 아우르며 수준 높은 경연을 펼치게 된다. 경연 첫날인 내달 1일 오후 2시부터는 본선 무대를 통해 결선에 진출할 상위 10팀을 가린다. 이어 내달 2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최종 결



<사진=남원시>

선에서는 대상(400만 원), 최우수상(200만 원), 우수상(100만 원) 등 총 3팀의 수상자가 가려질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전국의 실력과 밴드들이 모여 축제장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천호성 “농촌유학 증원... 전북형 교육귀촌 구축”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가 농촌유학생 규모를 기존 333명에서 3,000명으로 증원하고 정주형 교육귀촌 모델을 도입하는 내용의 농촌유학 활성화 공약을 28일 발표했다.

천 예비후보는 전북교육청 내 교육귀촌 전담팀을 신설해 ‘전북형 교육귀촌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단기 체험 위주의 기존 방식을 개선해 기숙형, 지역돌봄형, 가족체류형 등 1년 이상 지속 가능한 정주형 모델로 전환할 계획이다.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는 학교 부지를 활용한 농촌유학센터 건립을 제시했다. 소규모 예산으로 단기간에 시설을 마련하고, 마을 협력 위탁운영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중·고등학생 대상 농촌유학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북농촌유학원’ 건립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해당 시설을 통해 외국인 학생 유치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부모 학교선택제를 도입해 타 시·도 학생뿐만 아니라 도내 거주 학생들도 원하는 농촌 지역 학교로 자유롭게 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전북교육청은 교육을, 지자체는 주거와 일자리를 각각 분담 지원하는 교육귀촌 정책을 추진해 학교와 지역의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내달 5일 ‘2026 어린이 축제’ 개최

‘어린이 주도형 콘텐츠’ 기획

내달 5일 어린이날 ‘국립전주박물관 어린이 축제’가 개최된다.

‘어린이 축제’는 2026년도 어린이날을 기념해 국립전주박물관 일원에 준비되며 즐거움과 행복을 만끽할 수 있을 전망이다.

축제는 어린이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주도형 콘텐츠’ 위주로 기획됐다.

축제 체험 프로그램은 스캐리캐처 및 페이스페인팅 스킵에 체험 △이색 활동 △전통 놀이 등이다.

특별 프로그램은 △태권도 퍼포먼스, 환상적인 마술쇼 △애니메이션 영화 ‘코

코(Coco)’ 상영 △휘릭이’ 포토존 설치 등 소중한 순간을 기념할 수 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이날 어린이들의 특별한 선물로 10시 30분과 오후 2시 두 차례 간식 나눔 행사가 진행되며 축제 즐거움을 더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 축제 기간 비가 내릴지라도 관람객들은 축제 관람에 지장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단, 비바람을 놀이와 전통 놀이 등 일부 야외 프로그램은 기상 상황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

한편 국립전주박물관은 “푸르른 5월, 가족과 함께 박물관에서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의 장”이 되길 기대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 관광굿즈 공모’ 일반인 전시심사 성황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전주 한옥마을 내 우리놀이터 마루달 야외마당에서 ‘2026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굿즈 공모전’ 일반인 전시심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 심사는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를 보완하고, 실제 구매층인 관광객의 시각에서 상품의 매력도와 시장성을 직접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간 진행된 심사 현장에는 총 4,189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했으며, 그중 2,601명이 직접 투표에 참여해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굿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재단은 후보자의 투표 결과를 종합해 최대 5점의 가산점을 부여했고, 전시 기간 중 수렴된 방문객 만족도 조사와 굿즈에 대한 피드백은 향후 선정작의 품질 향상을 위한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10개 내외의 기업에게는 최대 8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함께 체계적인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전주 한옥마을이라는 지역 거점에서 관광객들과 직접 소통하며 전북특별자치도 굿즈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군산시립교향악단 ‘베토벤 프로젝트 I’ 공연

군산시립교향악단이 오는 6월 11일 오후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167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프로젝트 I’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베토벤 음악에 담긴 생명력과 예술적 깊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무대는 한국 클래식계의 가장 정지용 지휘자가 객원 지휘를 맡아 기대를 모은다. 협연자로는 2024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유성호가 참여해 완성도 높은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베토벤의 유일한 발레 음악 서곡인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서곡(Op.43)’으로 막을 연다. 이어 서정적이

면서도 독창적인 도입부가 인상적인 ‘피아노 협주곡 제4번 사장조(Op.58)’가 연주되며, 마지막으로 리듬의 역동성이 돋보이는 ‘교향곡 제7번 가장조(Op.92)’로 대미를 장식한다.

박현자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초여름의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6월, 베토벤의 위대한 음악을 통해 시민들께 품격 있는 휴식과 활력을 전하고자 이번 공연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의 티켓 예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티켓링크를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립교향악단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호원대 펜싱부, 전국대회 다수 입상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펜싱부가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호원대 펜싱부는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전라남도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55회 회장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에 출전해 개인전 우승 2개를 포함해 단체전에서 다수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개인전에서는 스포츠무도학과 4학년 김시우 선수가 남자 플뢰레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스포츠무도학과 1학년 최재은 선수는 여자 에페 종목에서 정상에 오르며 신입생답지 않은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다. /장정철 기자

단체전에서도 고른 성과가 이어졌다. 남자 플뢰레 단체전에서는 김시우(4학년), 한영진(3학년), 유호성(2학년), 손하진(경영학과 1학년) 선수로 구성된 팀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남자 에페 단체전에서는 나성찬, 이승민, 강태원(이상 4학년), 오신우(3학년) 선수가 3위를 기록했으며, 여자 에페 단체전에서도 이유민, 박한별(이상 4학년), 김하늘(3학년), 최재은(1학년) 선수가 3위를 차지했다.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는 이상언(3학년), 강누리, 이준희, 채은성(이상 1학년) 선수가 출전해 3위에 올랐다. /장정철 기자

도로 위 근절 5대 반칙 운전!

새치기(불법) 유턴



유턴구역에서 후방차량이 선행차량보다 먼저 유턴시 위반

버스전용 차선위반



이용불가 자동차가 전용차로 불법 이용시 위반

포리물기 금지 위반



교차로 내 정체시 진입금지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정지 서행구간 끼어들기 금지 위반

비긴급구급차 법규 위반



허위 환자를 태우고 사이렌 울리면 위반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지역 곳곳 자연·역사 담은 사진 67점 전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박물관 2층 시민열린갤러리에서 28일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 군산사진동호회 사진전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군산'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군산의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풍광을 주제로, 지역 곳곳의 아름다움을 담은 사진 작품 67점을 선보인다.

군산사진동호회는 지역 사진작가들이 모여 활동하는 단체로, 사진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과 일상의 풍경을 기록하고 공유하며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3년간 꾸준한 활동을 통해 군산 곳곳을 탐색하며, 사색과 감상이 가능한 다양한 장소들을 사진으로 담아왔다.

군산사진동호회는 "이번 전시를 통해 바다와 강이 만나는 군산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절경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군산이 지닌 자연과 도시의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며, "관람객들이 군산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가족전염병 선제적 차단... 예방백신 11종 공급

정읍시가 지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족전염병 예방백신 11종을 공급하며 선제적 방역 강화에 돌입했다.

이번 사업은 가족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고자 추진된다. 시는 총 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족 방역 약품을 확보했다.

공급 대상은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완료한 관내 축산농가다. 시는 가족방역신탁회를 통해 백신 종류를 확정했으며, 각 농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백신을 배부한다. 소규모 농가를 우선 지원한 뒤 전체 농가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예방백신은 소 탄저·기종저, 소 전염성 비기관염, 야카비내병, 소 설사병, 송아지 설사병, 돼지 열병 등 주요 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11종이다.

시는 이번 백신 공급으로 계절성과 상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족전염병을 예방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기후와 축산 환경 변화로 전염병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예방 중심의 방역 체계 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양육시설·가정위탁 아동 대상 실질적 지원 모색

익산시가 복합적인 어려움과 특수육구를 지닌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익산시는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양육 시설 보호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고난도 통합사례회의' 운영에 돌입했다.

고난도 통합사례회의는 아동 개별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사례관리를 통해 돌봄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등으로 사회·정서 발달에 어려움을 겪거나 충동적 행동, 대인관계 문제 등으로 복합적인 위기를 겪는 고난도 사례 2건을 우선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별 아동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수육구에 맞는 개입 방향과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시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양육시설별 정례회의를 운영하며 매일 고난도 사례를 지속 발굴·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육시설 아동뿐 아니라 가정위탁아동도 통합사례회의 대상에 포함해 운영한다. 통합사례회의에는 익산시와 전북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생활환경, 학습상황, 정서·심리 상태 등을 종합 점검하고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방안을 협의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유관기관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강화 2(題)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

군산시는 관내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설 노후화로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음식점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총 2,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4개 업소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며, 사업 대상자 모집은 오늘부터 5월 15일 까지 진행된다. 군산시 누리집, 보편e 사이트, 한국외식업중앙회 군산시지부 등을 통해 홍보 및 신청 접수가 이루어진다.

특히 이번 사업은 관내 노후시설을 보유한 위생 취약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영세 업소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 내용은 조리장, 객석, 화장실 등 영업장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바다·벽·천장 개보수, 환기시설, 세면대, 화장실 등 위생설비 교체와 입식테이블 교체 등 음식문화 개선을 포함하며, 업소당 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 음식점 시설개선을 통해 위생수준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 10개소 신규 지정

군산시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에 박차를 가한다.

군산시는 28일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양동 서래장터 등 10개 구역을 신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곳은 △경양동 서래장터 △군산 원도심(영동 상가) △군산대 대학로 △대명 오손도순(구 역전종합시장 주변) △산북·소룡 △수송제일 등 10개소다.

이로써 군산시 내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16개소에서 26개소로 확충 늘어났다. 신

규 지정 구역의 1,100여 개 점포가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되면서, 골목형상점가로 편입된 소상공인 점포 수만 2,700여 개에 달해 지역 상권의 지형도를 새롭게 그리고 있다.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벌써 6차례에 걸친 심의회를 통해 26개소의 골목형상점가를 발굴해 낸 것은 지역 상권 자립을 향한 상인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시의 행정력이 맞물린 결과"라며, "단순 지정을 넘어, 이들 상점가가 전통시장과 더불어 군산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5월 황금연휴' 즐길거리 풍성

도심형 축제·레저·생태 맞춤형 코스 가동

익산시가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 황금연휴를 맞아 도심형 축제와 이색 레저, 생태 힐링이 어우러진 풍성한 즐길 거리를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노동절부터 주말과 학교 재량휴일, 어린이날로 이어지는 5일간의 연휴를 겨냥한 맞춤형 관광 코스를 준비해 나들이객 맞이에 나선다.

연휴의 시작은 '2026 익산 서동축제'가 책임진다. 5월 1일부터 3일까지 중앙체육공원과 신흥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도심 속에서 백제의 사랑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다.

1일 오후 5시 여양공원에서 시작돼 시내를 가로지르는 도심 페어리드는 축제의 백미로 꼽힌다.

또한 축제 기간 저녁 8시 신흥 무지개 정원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레이저 쇼가 익산의 밤하늘을 환상적으로 수놓으며 잊지 못할 야경을 선사할 예정이다.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보석박물관 '다이노키즈월드'는 서동축제 기간인 1일부터 3일까지 야간 연장 운영을 실시한다. 연휴의 정점인 5일 어린이날 당일 중앙체육공원에서는 '익산 어린이날 콘서트'가 열려 도심을 활기로 채우고, 원광대학교 대운동장에서는 우리 전통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솜리 어린이 민속 잔치'가 동시에 펼쳐져 어린이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색적인 동물 교감과 교육 프로그램도 곳곳에서 펼쳐진다. 용안 공공승마장에서는 승마 체험과 가상 현실을 활용한 엑스알(XR) 승마,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만경강문화관에서는 '모두 다 꽃이'를 주제로 손풍선 만들기, 낚시 놀이 체험이 열리며, 백제문화재협관과 익산 시민역사기록관도 어린이날 맞이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을 맞이한다.

농촌 지역에서도 축제 열기는 이어진다. 함열초등학교에서는 2일 '농촌 어린이 한마당'이 열려 풍선 아트와 무드 등 만들기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체험의 장이 마련된다.

또한 9일에는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가 열려 가정의 달 분위기를 고조시킬 전망이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숲속 놀이터 신흥공원 유아숲체험원도 최적의 생태 힐링 코스로 나들이객을 기다리고 있다.

정한울 익산시장은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축제부터 이색 체험, 생태 힐링까지 모든 세대가 만족할 수 있는 콘텐츠를 내실 있게 준비했다"며 "익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통해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의 역사·문화, 웹툰으로 그린다"

오는 6월 22~30일 공모

정읍시가 지역의 가치를 발굴하고 창의적인 홍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제4회 정읍 웹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동학농민혁명을 비롯해 정읍의 문화, 역사, 인물 등 지역과 관련된 소재를 웹툰으로 재해석하고자 마련됐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자격으로 응모할 수 있으며, 작품 접수는 오는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출품 규격은 완결본 기준 50컷 이상의 JPG 파일이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전체 원고를 순서대로 병합한 심사용 PDF 파일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접수는 전자우편(loveejr1@korea.kr)으로 할 수 있다.

시는 주제 적합성, 창의성, 메시지 전달력, 완성도 등을 심사해 8월 중 최종 9명의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총상금은 1000만원 규모로 대상 1명(500만원), 최우수상 1명(200만원), 우수상 2명(각 100만원), 장려



<사진=정읍시>

상 5명(각 20만원)에게 수여된다. 선정된 작품은 향후 5년 동안 정읍시 누리소통망(SNS)과 누리집, 소식지 등을 통해 지역을 알리는 홍보 자료로 게재되며 교육 현장에도 보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누리집 공모문을 확인하거나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063-539-517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숙련 외국인 정착 환경 조성

'외국인 체류관리' 교육

익산시가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을 돕고, 산업 현장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익산시는 28일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지역 제조업체 및 고용허가제 외국인 채용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체류관리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외국인 고용 기본 법규와 체류 신고 의무, 행정 절차

등을 중심으로 실무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최근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의 관심이 높은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전환 사업'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뤄졌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기업의 체류관리 역량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 해소와 권익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한울 익산시장은 "이번 교육은 숙련된 우수 외국인 인재를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며 "지역의 소중한 구성원인 외국인 주민이 안심하고 일하는 환경을 조성해 기업과 외국인 인력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반려동물 정책 홍보부스 '호응'

군산시는 제21회 군산풍덩보리축제에서 동물정책과가 운영한 반려동물 홍보부스를 통해 시민 참여 기반의 동물복지 정책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부스는 단순한 유기동물 입양 안내를 넘어,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과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현장 중심 정책 홍보의 새로운 모델로 운영됐다.

행사 현장에서는 반려견을 동반한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마련됐다. 반려견 수제 간식 만들기 체험과 위생·미용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양육 정보를 제공했으며, 수의사가 직접 참여하는 건강 상담을 통해 반려동물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도 이뤄졌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등록을 현장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반려견이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등 이용 환경 개선에도 힘썼다.

유기동물 보호 정책 안내도 병행됐다. 보호 중인 유기견의 특성과 건강 상태를 중심으로 개별 상담을 진행해 입양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충분한 숙고를 유도하기 위해 현장 입양은 제한적으로 운영했다.

군산시는 이번 운영을 통해 단순 홍보를 넘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벼 수매용 '톤백' 구입비 지원

내달 4일까지 신청 구입 비용의 50% 지원

정읍시가 벼농사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확기 필수 자재인 톤백(대형 포대)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5월 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벼 수확 후 양곡 보관과 운반에 사용되는 톤백(800kg·1000kg) 구입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2만 1050장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000㎡ 이상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중소규모 농가 지원을 위해 2ha 이하 재배 농가를 우선 선정하고, 물량에 여유가 있을 경우 5ha 이하 농가까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가당 지원 한도는 최대 20장이다.

사업은 개별 구입이나 지역 협회를 통한 공동 구입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원활한 공급과 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 구입을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지원되는 톤백은 정부 규격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공급해 공공비축미보관·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톤백 지원으로 벼 생산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수확기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규격화된 자체 사용으로 공공비축미 관리 체계를 내실화해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 만족도 조사

내달 20일까지 이용자 의견 반영해 서비스 개선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가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용 현황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군산시는 오는 5월 20일까지 '배달의명수' 이용 소비자와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만족도 및 개선사항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그동안의 이용 현황을 점검하고,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불

편 사항과 제안 의견을 수렴해 향후 서비스 개선 및 정책 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달의명수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중 총 500명(소비자 250명, 가맹점주 25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는 추첨을 통해, 가맹점주는 선착순으로 '배달의명수 5,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공공배달앱이 민간 앱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마중물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진답해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욱 편리

하고 사랑받는 '배달의명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달의명수'는 전국 최초의 지자체 공공배달앱으로서 가맹점에는 중개수수료 절감 혜택을, 소비자에게는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 상생의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2026년 1분기 기준 매출액 1,340백만 원, 주문건수 46,473건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매출액 919백만 원, 주문건수 32,720건) 대비 각각 45%, 42% 증가하는 등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24시간 약취상황실' 운영

익산시가 하절기와 야간 취약시간대 발생하는 약취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익산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24시간 약취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상생과 야간 기상 여건 등으로 약취 민원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약취상황실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약취추적 차량을 활용해 상시 감시를 진행한다.

한편, 약취 민원 신고는 전용 앱 '익산약취24' 또는 전화(063-831-8020)를 통해 할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생 위치와 성분 물질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 사업장 현장 확인 등 약취 발생 신속 차단에 나선다.

특히 취약시간대 약취를 유발하는 사업장과 야간 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전체 약취 민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축산약취 대응도 강화한다.

주요 민원 유발 축사 등 집중관리 농가를 대상으로 '가족분뇨법'에 따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축산약취 상시감시를 운영해 수시 순찰과 고농도 약취 발생 시 즉각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약취 민원 신고는 전용 앱 '익산약취24' 또는 전화(063-831-8020)를 통해 할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고창군-(주)보나비, 농산물 상생 협약

팥콩·단호박 등 활용 베이커리 출시...지역 농산물 경쟁력 강화

고창군과 (주)보나비(브랜드 아티제)가 지역 농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판로 확대를 위한 협력을 나섰다.

고창군은 지난 27일 군청에서 (주)보나비와 '고창 농산물 유통·가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주)보나비 오민우 대표이사 및 마케팅 관계자, 지역 가공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고창에서 생산된 팥콩, 단호박, 수박 등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과 SNS 공동마케팅이 진행된다. 원물 공급과 더불어 프리미엄 베이커리 카페 메뉴를 출시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데 목적이 있다.

(주)보나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베이커리 카페 '아티제' 매장을 50여 개 운영하며 스페셜티 커피와 베이



지난 27일 체결된 고창군-(주)보나비 '고창 농산물 유통·가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사진=고창군>

커리, 디지털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협약에 따라 고창군은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관리, 공동마케팅을 지원하고, (주)보나비는 이를 활용한 제품 개발과 생산, 아티제 매장 판매 및 홍보를 담당한다.

이번 협업을 통해 '고창 팥콩 연유 크림 브랜드', '고창 단호박&크립치식

빵', '고창 수박주스' 등 고창 농산물 시즌 메뉴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협업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고창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하전바지락 오감체험' 개막

내달 1~3일 개최

고창군이 오는 5월 1~3일 심원면 하전어촌체험마을 일원에서 '제9회 하전바지락 오감체험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 최대 바지락 생산지인 하전마을의 정체성을 담아, 단순히 '보는 축제'를 넘어 지역민과 관광객이 갯벌을 통해 진정으로 연결되는 '사람 중심'의 축제로 기획됐다.

방문객들은 바지락 무료 나눔과 시식 행사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조개 캐기 갯벌 체험 풍천장어 잡기 등 기존 인기 프로그램은 물론, 울해는 트랙터를 타고 갯벌로 나가 즐기는 '버스킹 공연'과 갯벌 보물찾기 등 갯벌 퍼레이드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됐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부안마실축제 대비 의료지원 역량 강화 교육

부안군보건소는 지역 대표 축제인 제13회 부안마실축제 개최를 앞두고 행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지원 인력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축제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를 수행하기 위한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마련됐으며 보건소 의료지원 참여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상처 소독 및 붕대감 등 기본 응급처치, 현장 대응 요령 등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습 위주로 운영됐다.

특히 심정지와 같은 응급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참여 직원들은 반복 실습을 통해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한층 강화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부안마실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직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부안군,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 주의 당부

올해 첫 사망자 발생

부안군보건소는 지난 23일 경기도 소재 병원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확진 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고위험군 등을 중심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망자는 40대 남성으로 간질환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다리 부종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한 뒤 비브리오패혈증으로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브리오패혈증의 원인균인 'Vibrio vulnificus'는 염분을 좋아하는 호염성 세균으로 해수 온도가 약 18~20°C 이상으로 상승할 때 증식하기 시작하며 30~37°C에서 가장 활발하게 증식한다고 알려져 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해당 균에 오염된 어패류(해삼, 생선회, 홍합 등)를

/부안=온봉기 기자

충분히 익히지 않고 섭취하거나 상처 부위가 오염된 해수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다.

감염 시 사망률은 최대 50%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요 증상으로는 오한, 발열, 복통, 설사, 구토 등이 있으며 발병 후 24시간 이내에 다리 부위에 부종이나 출혈성 수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비브리오패혈증은 어패류를 충분히 익혀 섭취하고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며 "증상 발생 시 지체없이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고창군-인재개발원, 농기계 순회수리 나서

농업인 안전 확보 '양장'

고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과 협력해 '봄철 농기계 합동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에 나섰다.

지난 27일 고수면 농협 광장에서 진행된 순회수리 현장에서는 봄철 필수 장비인 예초기 2종 50여 대를 집중적으로 정비했다. 겨울철 장기간 방치돼 녹이 슬거나, 연료 노즐이 막히는 등 사용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예초기를 수리해 농가들의 불편함을 덜어줬다.

또한, 단순한 기계 수리를 넘어 현장에서 올바른 농기계 조작법과 간단한 자가 정비 노하우를 전수하는 안전교육도 병행했다. 특히 예초기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구 착용 및 올바른 조작법을 집중적으로 지도하며 농업인의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섰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오성동 소장은 "농기계 수리점이 멀어 불편을 겪는 마을과 고령 농가를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중요한 것은 물론 김제시 풍소비 확산을 위해 추진한 전통장류 마스터 클래스반 과정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수료식을 주관한 장류 체험장(지평선 연미항)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마스터 클래스반은 된장, 고추장, 청국장 등 김제 콩을 활용한 전통 발효식품 제조 및 활용법을 한시 예장인 지평선연미항 강민미 대표와 함께 이론과 실습으로 배우는 특별한 과정이다. 총 10회에 걸쳐 15명의 교

육생이 참여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러 전통식품의 맥을 잇는 뜻을 시간을 보냈다.

이승중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김제는 전국 최대 농공 주산지인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전통장류 기술과 지역 농산물 활용 능력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매년 전통장류 마스터 클래스반을 꾸준히 운영해 콩 산업 발전과 지역 소득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사진=김제시>

김제시, 전통장류 마스터 클래스반 성료

김제시는 28일 전통식품의 맥을 잇는 것은 물론 김제시 풍소비 확산을 위해 추진한 전통장류 마스터 클래스반 과정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수료식을 주관한 장류 체험장(지평선 연미항)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마스터 클래스반은 된장, 고추장, 청국장 등 김제 콩을 활용한 전통 발효식품 제조 및 활용법을 한시 예장인 지평선연미항 강민미 대표와 함께 이론과 실습으로 배우는 특별한 과정이다. 총 10회에 걸쳐 15명의 교

육생이 참여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러 전통식품의 맥을 잇는 뜻을 시간을 보냈다.

이승중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김제는 전국 최대 농공 주산지인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전통장류 기술과 지역 농산물 활용 능력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매년 전통장류 마스터 클래스반을 꾸준히 운영해 콩 산업 발전과 지역 소득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중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김제는 전국 최대 농공 주산지인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전통장류 기술과 지역 농산물 활용 능력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매년 전통장류 마스터 클래스반을 꾸준히 운영해 콩 산업 발전과 지역 소득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마실축제 최종 현장 보고회 개최

내달 2~4일 개최 프로그램 및 시설물 점검

부안군은 28일 제13회 부안마실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축제 장소인 부안 해돋이마루 지방정원에서 최종 현장 보고회를 열고 막바지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중문 부안군 대표축제 추진위원장과 정화영 부안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축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축제 공간별로 구성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주요 시설물을 직접 살피며 실행 계획을 최종 점검했다.

특히 이번 축제의 주제 프로그램인 '최고의 마실을 찾아라'를 비롯한 주요 프로그램의 진행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 무대와 먹거리존 등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와 교통 대책을 집중 점검하며 축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올해 부안마실축제는 '일상이 특별

해지는 5월의 선물'을 주제로 오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개최되며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풍성한 즐길 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중문 위원장은 "정성껏 준비한 프로그램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마지막까지 미비점을 철저히 보완해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김제시, 농촌지도·연구직 대응력 강화

현장 중심 직무별 전문성 함양... 직원 역량 향상

김제시는 지난 27일 상록관 대강의실에서 농촌지도·연구직의 농촌지도분야 업무 연찬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급격한 농업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중심의 기술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농촌지도분야 직원 업무 연찬회'가 오는 12월까지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연찬회는 직무별 전문성을 갖춘 지도인력을 양성하고, 영농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

매일 연찬회는 영농현장 기술지원팀의 운영 사례 공유와 함께 작목별 전문지도 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발표가 진행된다.

특히 식량작물, 원예, 과수 등 다양한 분야의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사례와 기술 정보를 발표함으로써 실질적인 업무 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요 작목별 당면 영농지도 자료를 공유하고, 병해충 방제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기술 정보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지도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권역별로 구성된 영농현장 기술지원팀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찬회를 통해 팀별 활동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우수사례 확산과 협업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된다.

이승중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연찬회는 단순한 교육을 넘어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의 전문성과 대응 능력을 높여 농업인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2027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

중앙부처 방문, 전지훈련 특화시설 등 현안 건의

고창군이 2027년 고창군 주요 현안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을 위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은 28일 세종시에서 '중앙부처 대응 현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고창군 주요 현안사업 건의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이재순 스포츠산업과장을 만나 사계절 전천후 훈련이 가능한 '전지훈련 특화시설(아름다운 체육관)'을 건의했다.

특히 지난해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 민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고창군을 호남권 스포츠 메카

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고창군은 매년 15여 개의 전국대회와 35건 이상의 전지훈련 유치로 연간 35억원 규모의 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어 대선공약으로 반영된 '국제 카누 슬라럼 경기장 조성사업(197억원)'을 건의했다. 카누 슬라럼은 2036년 전북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필수 기반 시설이며, 고창군은 부지확보가 완료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국제경기장 건설 시 대규모 선수단 수용이 필수적인데, 고창군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471실 규모의 고창종합테마파크를 인근에 조성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차상화 재난경감과장을 만나 고수 편충 자연재해위험개

선지구 정비사업(290억원), 대산 산정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308억원), 아산 상갑지구 가뭄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126억원)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들러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492억원)의 계속사업비 반영을 건의했다.

부처 방문 후 진행된 전략회의에서는 74건(총사업비 4083억원)의 국가예산 사업에 대해 부처별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은 "2027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백종규 기자

순창군, 교통약자 이동권 전면 강화

1만4천여명 편의 정책 확대 추진 특별교통수단 확대·서비스개선 안전인프라·온열의자 등 시설 확충

순창군이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보행환경 개선,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이동편의 증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순창군 교통약자 인구는 1만 4천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5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 특성상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는 생활 불편 해소와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특별교통수단 차량 확충을 통해 이동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중증 보행장애인을 중심으로 보다 안정적인 이동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 이동지원센터는 지속적인 차량 확충과 운영 지원을 통해 교통약자의



순창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사진=순창군>

이동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순창버스공용터미널 환경 정비와 공공요금 지원, 승차장 비가림 시설 보수 등 이용자 중심의 교통시설 개선 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버스승강장 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온열의자 설치와 시설 보수 등 편의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노인보호구역 운영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교통안전 캠페인, 운수종사자 및 교통약자 대상 교육 등 다양한 교통문화 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하며 교통약자 보호 기반

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군은 올해도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확대,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보강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약자 이동환경 개선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 분야”라며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통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춘향제 개막작 ‘시민 춘향’ 채비 완료

5월1일 공연...시민 참여 확대 판소리·합창·무용 결합 종합예술

남원시가 제96회 춘향제 개막을 앞두고 시립예술단 합동공연 ‘시민 춘향’의 모든 리허설 과정을 마무리하고 완성도 높은 본 공연을 위한 최종 채비를 마쳤다.

이번 공연은 남원을 대표하는 전통 예술을 한 무대에 집약한 창작 공연으로, 춘향제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시립국악단·농악단·합창단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남원시 국악공연장 ‘청아원’에서 사전 리허설을 진행해 통합 무대 구성과 장르 간의 조화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28일에는 광한루원 앞 특설무대에서 실제 공연 환경과 동일한 음향, 조명, 무대 동선 등을 점검하는 최종 현장 리허설을 진행했다.

개막공연 ‘시민 춘향’은 전통 판소리를 바탕으로 합창, 창작무용, 기악 연주가 결합돼 기존의 틀을 깬 새로운 형태



96회 춘향제 개막작 ‘시민 춘향’의 청아원 리허설

<사진=남원시>

의 종합예술 무대를 선보인다.

특히 시는 이번 공연을 통해 어린이부터 청년,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령대의 시민들이 무대의 주인공으로 직접 참여해 ‘시민이 주인공’이라는 춘향이라는 축제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공연 구성 또한 눈길을 끈다. 제례악적 분위기의 장엄한 서막으로 시작해 역동적인 춘향 서사를 거쳐, ‘사랑가’를

현대적 감각으로 활용한 대합창 피날레로 대미를 장식한다. 시는 이번 공연을 통해 남원만의 차별화된 문화예술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96회 춘향제의 서막을 열 개막공연 ‘시민 춘향’은 오는 5월 1일 저녁 7시 40분, 광한루원 앞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남원=김종원 기자

순창군, 낡은 자치법규 손본다...일제정비 추진

상위법 미반영·사문화 전면 점검 5월 전수검토 후 6월 입법예고

순창군이 상위법령과 맞지 않거나 현실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

군은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인 정비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제·개정된 지 오래돼 상위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 중복 또는 사문화된 조례·규칙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자치법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을 줄이고 군민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비 대상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자치법규를 비롯해 근거 법령이 폐지됐거나 실효성이 낮아진 규정,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 등 개선이 필요한 조문 전반이다.

특히 동일한 사항이 다른 조례에 중

복 규정된 경우 통합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오는 5월 부서별 관리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군의회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행정의 기본 기준이 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어린이날 가족 체험 ‘풍성’

관객 참여형 미술·연주 등 운영 수소XR스마트버스 체험 마련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이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 활동을 운영하며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하루를 선물한다.

이번 활동은 어린이날을 기해 삼례문화예술촌을 찾는 어린이와 가족 방문객에게 즐거운 추억을 제공하고 체류형 관광지로서 예술촌의 매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어린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삼례문화예술촌 야외마당 일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관객 참여형 미술 공연과 칼리바·오카리나 합주(양상블) 공연을 비롯해 얼굴 그림(페이스 페인팅), 풍선 예술(풍선 아트) 등 어린이를 위한 다채로운 체험 활동을 운영한다.

특히 ‘찾아오는 동물 관찰 체험 마당’을 통해 거북, 앵무새, 토끼 등 다양한 동물과 가까이서 교감할 수 있는 시간도 준비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또한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완주군 수소 엑스알(XR) 스마트 버스를 현장에 배치한다. 방문객들은 버스 내부에 직접 탑승해 완주군의 문화 관광 교육 내용(콘텐츠)을 실감형으로 체험하며 최첨단 기술과 관광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다.

서진순 문화역사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문화공간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시, 보훈수당 월 13만원으로 인상

예산 21억 투입 복지예우 강화 1,300여명 대상 월 3만원 증액

남원시가 ‘남원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기존 월 10만 원에서 월 13만 원, 참전유공자는 월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인상된 보훈수당은 2026년 4월 분부터 적용된다. 지급 대상은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1,300여 명에

가 지원된다.

보훈수당 인상에 따른 2026년 총 소요예산은 21억 3,372만 원으로, 기존 대비 올해 3억 5,100만 원 증액된다. 이에 따른 증액분은 전액 시비로 부담한다.

남원시는 이번 보훈수당 인상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실질적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남원=김종원 기자

남원시, 춘향제 앞두고 불법촬영 집중 점검

시·경찰·시민단 합동 점검 진행 사각지대 탐지기 정밀 확인

남원시는 ‘제96회 남원 춘향제’를 앞두고 관람객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지난 23일과 28일 양일간 남원경찰서(서장 문영상)와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남원시 시민참여단 30명과 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민·관·경 합동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민참여단은 매년 5월 축제 전, 지역사회의 안전 과수꾼을 자처하며 관광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합동 점검반은 춘향제의 주 무대인 광한루원과 요전 둔치를 비롯해 축제 주요 행사장 및 인근 관광지 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정밀 점검을 펼쳤다.

/남원=김종원 기자

점검팀은 전과 탐지기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육안 점검이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폈다. 점검 완료 후에는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병행하여 지역사회의 경각심을 높였다.

남원시는 축제 기간 중에도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하여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관광 도시 남원’의 위상을 확고히 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축제를 찾는 수많은 관광객이 범죄 걱정 없이 남원의 멋과 맛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96회 남원 춘향제는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간 광한루원과 요전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사진=완주군>

완주군, 현대차 노조 가족 대상 안전체험 운영

200여명 참여 체험형 프로그램 화재·재난·생활 안전 교육 등 체험관

완주군이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에서 현대자동차 노조조합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참여형 체험 안전교육 활동을 운영하며 생활 속 안전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지역 사회 안전 문화 확산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지난 26일과 오는 5월 17일 총 2회에 걸쳐 200여 명(참여 아동 및 보호자 포함)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안전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재난·사고 대응능력을 높이고 일상 속 안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활동은 영상 교육, 교통 안전 교육,

화재·재난·생활 안전 교육 등 체험관 정규 안전 교육 과정과 함께 심폐 소생술(CPR) 체험, 다중 탈출 사고 발생 시 대응 요령 교육, 생존 가방 만들기, 안전 퀴즈, 안전 배지·팔찌 만들기 등 가족 참여형 특별 활동으로 구성된다.

교육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가족이 함께 안전의 중요성을 배우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키우고,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안전문화 거점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상관면, 고유가 지원금 접수 ‘신속 처리’

사전 안내 강화로 혼잡 최소화 완주군 상관면(면장 국혜숙)이 지난 27일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 첫날을 맞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주민

들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인 접수 처리를 지원하며 민생 안정에 나섰다.

이번 1차 지급 대상은 기초 생활수급자(60만 원)와 차상위·한부모(50만 원) 가정으로, 신청 첫날부터 대상 주민들의 방문이 이어지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상관면은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 문자 발송, 아파트 방송 및 안내 게시, 복지시설을 통한 적극적인

안내 요청, 전담 창구 마련, 고령자 및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인력을 별도로 운영해 신청 절차 안내를 지원했다.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본인 방문과 대리인 방문의 동선을 분리하고, 방문 순서대로 대기할 수 있도록 착석 공간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전반적으로 큰 혼선 없이 신청이 진행됐다.

국혜숙 상관면장은 “5월 8일까지 이루어지는 1차 지급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QR코드 활용 모기 서식지 신고 간편 접수

남원시보건소가 여름철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과 시민 편의를 위해 스마트폰 GPS 위치 정보를 활용한 ‘QR코드 모기 서식지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전화 접수 방식은 신고자가 직접 발생 위치를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시민들은 별도의 앱 설치 없이 QR코드 스캔만으로 현장에서 민원을 즉시 접수할 수 있게 됐다.

신고 대상은 남원시 관내 동 지역의 공원, 하수구, 웅덩이 등 모기 유충 및 성충이 밀집된 공공장소다. 다만, 읍면 지역과 사유지는 이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정확성과 편의성이다. 신고 시 스마트폰 GPS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돼 위치 설명의 번거로움을 없앴으며, 방제 기동반은 축적된 발생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밀한 현장 맞춤형 방제를 수행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모기 서식지 발생지 QR코드를 스캔한 뒤 개인정보 동의와 민원 내용을 작성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특히, 추후 동일한 QR코드를 다시 스캔하면 본인이 접수한 민원의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남원=김종원 기자

순창군, 자살예방위원회 개최 봄철 고위험 대응체계 점검

순창군은 지난 27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상반기 순창군 자살예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조광희 부군수가 자살예방관으로 지명된 이후 처음 주재한 회의로, 자살예방사업 추진 상황 점검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경찰서, 소방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족센터 등 각 기관에서 위촉된 자살예방위원 15명이 참석해 △2026년 자살 관련 현황 공유 △자살예방사업 추진 상황 점검 △서면회의 논의 안건 공유 △봄철 자살 고위험 시기 대응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순창군은 현재 자살지도자, 자살유족, 자살 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위기 지원 서비스,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지역주민 우울 선별검사 등 다양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봄철 자살 증가 시기를 대비해 상담전화(109) 홍보, 공공광고 송출, 현수막 게시 등 집중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군은 자살예방관 지명에 따라 부군수를 중심으로 지역 내 자살 발생 현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 추진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혁신도시 어린이집 순회 로컬푸드 체험교육

(재)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센터장 정명석)가 지역 내 영·유아를 대상으로 로컬푸드의 가치를 오감으로 체험하는 ‘2026년 찾아가는 어린이집 식농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는다.

최근 진행된 교육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전북삼라로컬마켓에서 진행했다.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농업과 농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혁신도시 농촌진흥청 도담 어린이집에서 참여해 첫 회차 활동 ‘행복을 담은 화에 전문가(플로리스트)’를 마무리했다.

교육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형 수업으로 구성해 아이들의 오감을 만족시켰다. 주요 활동으로는 전북삼라로컬마켓 소개 및 지역 농산물 유통 과정 학습, 생화의 질감과 향기를 관찰하고 포켓지를 디자인하는 오감 탐색 활동, 나만의 꽃다발 만들기 실습 등을 진행했다.

정명석 센터장은 “앞으로도 완주 로컬푸드를 향한 신뢰와 가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센터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혁신도시 관내 어린이집을 순회하며 교육을 지속해서 이어갈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장수군, 2027년 예산 확보 총력

기획예산처-국토부 방문 주요 현안 당위성 설명 중앙부처 협력 강화로 지역발전 기반 마련

장수군이 2027년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목표로 중앙부처를 방문하며 전방위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수군은 지난 27일 이정우 군수 권한대행, 기획조정실 실무진 등과 함께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해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부처의 예산 편성이 구체화되는 시기에 맞춰 장수군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핵심 사업들을 정부안에 반영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도26호선(진안~장수 전천) 2차로 개량사업(7.27km, 667억 원)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건의했으며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부처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만나 국도13호선(장수~전천) 2차로 개량(4.4km, 313억 원) △국도26호선(전천~장계) 2차로 개량(3.8km, 312억 원)

△국도19호선(장계~계북) 2차로 개량(5.0km, 437억 원) 등 제6차 국도·국지 건설계획 반영을 집중 건의했다. 또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선정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이정우 군수 권한대행은 “장수의 변화 발전을 견인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비 확보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획예산처 및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장수군, 문화예술 공연 풍성

창작연희·타악·뮤지컬 등

장수군은 창작연희극과 미술공연 등을 잇따라 선보이며 군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지난 24일 장수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극단민들레(대표 장계숙)의 창작연희극 <똥벼락>이 관람객의 박수갈채로 막을 내린 것을 시작으로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장수군이 '2026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에 선정돼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장수군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했다.

같은 사업 일환으로 오는 30일 목요일 10시, 국내 타악전문 연주자들로 구성된 공연전문예술단체인 방타타악기(대표 방승주)의 학교생활을 모티브로 하는 타악공연 <SCHOOL:타악기가 학교를 점령하다>, 6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 극단청창(대표 박종우)의 세대공감 청소년 락 뮤지컬 <빨간기타>도 공연될 예정이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이 주최하는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이 지난 15일 (원맨쇼) 미술공연을 시작으로 6월 12일 10시 30분 <재미있고 신나는 버블>, 7월 8일 10시 30분 <동화로 보는 샌드아트> 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 봄꽃 절정

누적 방문객 7만 6천명 전년 동기대비 4%증가

임실군의 대표 관광지인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이 형형색색 봄꽃의 향연 속에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며 명실상부한 봄철 대표 힐링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3월 재개장 이후 붕어섬 생태공원 누적 방문객 수는 7만 6천명을 돌파하며, 전년 동기대비 약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

<사진=임실군>

이는 옥정호 일원이 사계절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꾸준히 높여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이 같은 인기에도 발맞춰 군은 보다 쾌적하고 품격있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대규모 조화류 식재와 경관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생태공원 전역에는 아네모네, 꽃양귀비, 수국, 비렌스 등 총 20종, 5만여본의 꽃이 공간별 특성에 맞춰 조성되어 옥정호의 수려한 주변경관과 어우러진 입체적인 화원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4월중순부터 본격 개화한 꽃잔디는 대지를 뒤덮은 분홍빛 웅덩이를 깔아 놓은 듯한 장관을 연출하고 있으며, 이어 개화를 시작한 절죽은 선명한 색감으로 공간의 깊이를 더해 방문객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 곳곳에 조성된 포토존은 산책객들에게 특별한 추억과 '인생샷'을 선사하고 있다.

붕어섬의 대표 볼거리인 작약과 꽃양귀비 또한 본격적인 개화를 앞두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약 5,500㎡ 규모의 작약단지는 탐스러운 꽃봉오리를 머금은 채 개화를 준비중이며, 1만㎡에 달하는 꽃양귀비 군락은 5월 중순부터 붉은 물결이 장관을 이루며 절정의 풍경을 선보일 전망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 무풍면 14개 동아리...지역 활성화 동력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 주민 주도형 실천 공동체 호평

무주군은 무풍면에서 추진 중인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이 지역 활성화 동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4개 동아리 활동(색소폰, 통기타, 난타, 캘리그래피, 레진 아트, 줌바댄스 등)과 배후마을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주민 개인의 취미 활동을 넘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실천형 공동체 활성화' 기반이 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동아리 회원 250여명은 각자의 재능과 특기를 살려 지역 축제 등 각종 행사에서 공연, 체험, 봉사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능을 기부하고 있다. 특히 행사는 주민들이 기획부터 준비, 운영까지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 주도형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나아가 동아리 간 소통을 강화하고



운영상의 완성도를 높임으로써 배후마을 서비스 프로그램과의 연계 효과를 내고 있다. 배후마을까지 함께 돌보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면서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동이 지역 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대석 무풍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

업(2단계) 주민위원회 위원장은 “반찬 배달과 영어교실, 스마트폰 교실 등 배후마을 주민들에게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나눔과 돌봄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주민 간 교류가 더 활발해지고, 지역 내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을 느낀다”라고 전했다.

/무주=최희호 기자

임실군립도서관, '이야기꽃 할머니' 양성

어르신 책놀이 지도사 교육 55세 이상 여성 총 10명 모집

임실군립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6년 도서관 문화예술동아리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공공도서관을 거점으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지역 주민들의 주체적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야기꽃 할머니' 양성과정은 지역 어르신

의 독서문화 활동 참여 및 세대간 문화 교류를 통해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이야기 활동에 필요한 이론 및 실기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책놀이지도사 자격증 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그림책을 매개로 어르신들이 전문적인 책놀이 지도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과정으로, 자격증 취득 이후 지역사회에서 재능기부 및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모집 대상은 55세 이상 여성 10명으로, 책놀이 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강사 활동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내달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격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 내용으로는 △책놀이의 개념 이해 △읽기 유형 및 표현 활동 △창의력 개발 놀이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다문화 이해 활동 △그림책 읽기 시연 및 실습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염소 사육 농가 현장 지도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무주군이 오는 6월까지 염소 사육 농가 현장 지도에 나선다. 이는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및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적법한 사육 방법 안내와 함께 축산업 허가·등록 절차 및 관련 기준 등이 공유될 예정이다. 특히 △축산업 허가·등록 절차, △사육시설 기준 준수사항,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방법, △악취 저감을 위한 관리 요령 등 농가별 여건에 맞는 개선 방안 등도 제시해 만족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무주군은 올해 한 해 10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안정적인 축산 경영 지원에 주력할 방침으로, 흑염소 경영안정 외에도 전문 교육 및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가축사육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한다. /무주=최희호 기자

장수군, '중간고사 대비 스터디캠프' 운영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1:1 학습코칭·학습환경 지원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은 지역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 향상과 시험 준비 지원을 위해 지난 25일 장수군청 군민회관에서 '1학기 중간고사 대비 스터디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스터디캠프는 장수군 으뜸인 재육성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내 중·고등학생 중 신청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험 대비 스터디캠프는 관내 학습공간이 부족하다는 장수군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1학기부터 진행했다.

특히 이번 캠프는 장수군청 군민회관을 독서실로 탈바꿈해 단순한 자습 공간 제공은 물론 주요 과목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한 전문 강사가 상주해 1:1 학습 코칭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참여 학생들은 영어, 수학 등 어려움을 겪는 과목에 대해 즉시 질문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학습 이해도를 높이고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 또한 스터디캠프 참여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와 간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교통편이 어려운 장거리 통학 학생들에게는 교통편을 지원하는 등 세심한 학습 지원을 병행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2026 진안 관광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오는 5월 31일까지 접수

(사)진안군관광협의회(이사장 이재동)가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 진안 관광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관광수요 창출과 수익 확보가 가능한 전 분야(관광상품·서비스, 체험 콘텐츠, 관광 시설 및 기술 등)를 대상으로 하며, 내달 31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공모는 '아이디어 부문'과 '창업 부문' 2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아이디어 부문'은 진안군 관광 활성화에 참신한 제안을 하고 싶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창업 부문'은 예비 창업자(선정 후 14일 이내 진안

군 소재 등록 필수) 또는 진안군 소재 사업자 등록 만 3년 이내의 초기 창업자가 대상이다. 두 부문 간 중복 참여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단순한 아이디어 발굴에 그치지 않고 선정된 팀에게 상금과 함께 5개월간의 밀착 벤처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맞춤형 컨설팅과 마케팅 지원을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지역 기반 비즈니스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움도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홍보 포스터의 QR코드 접속을 통해 양식을 다운로드 해 작성한 후 운영사무국 이메일(punnyarts@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초 소프트테니스부, 전국 대회서 '금빛 메달 릴레이'

전북 장수초등학교 운동부가 전국 무대에서 값진 성과를 이어가며 지역사회에 깊은 감동을 전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제19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배 전국 초등학교 소프트테니스대회에서 장수초는 개인복식 4학년 이하 여초부 1위, 개인복식 5학년 이상 남·녀 초등부 3위, 여초 단체전 2위를 차지하며 '금빛 메달 릴레이'를 이어갔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입상을 넘어 의미가 크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훈련해 온 학생들의 탐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코트 위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기술뿐 아니라 인내와 협력, 그리고 스스로를 이겨내는 힘을 키워왔다. 장수초 소프트테니스부의 도전은 이제 단순한 성과를 넘어 지역의 자랑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작은 학교에서 시작된 이들의 '성장 드라마'가 앞으로 어떤 결실을 맺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영농철 '영농현장 일제출장' 실시

임실군 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 직원 일제출장을 실시 현장 밀착형 기술 지도에 나섰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농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으로 농가 경영에 비상이 걸린 만큼, 전 직원이 12개 읍면 주요 영농현장을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벼 안전육묘 요령, 고추 적기 정식 및 과수화상병 예방·방제 등 당면 영농 시기별 필수 관리사항을 전파하여 안정적으로 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력을 집중했다. 또한 중동전쟁 파급영향 최소화를 위해 비용은 줄이면서 효율은 높이는 드론모심기, 벼 직파 재배, 마른논 씨레질 등 저투입 농업기술을 적극 홍보하고 '홍도담' 시스템을 활용한 '적정 시비 캠페인'을 펼쳐 불필요한 생산비 절감 및 농가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핵심 농법을 집중적으로 보급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2026년 전북도민체전 실무추진단 회의 개최

진안군은 오는 9월 진안군 공설운동장 및 종목별 경기장에서 열리는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민(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8일 군청 강당에서 실무추진단 회의를 열고 세부 실행계획을 구체화했다. 이경영 진안군수 권한대행(부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국소장 및 전 부서 주무팀장을 비롯해 진안경찰서, 진안소방서, 진안교육지원청, 진안군체육회, 진안군장애인체육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회 개요 공유 △추진상황 전반 점검 △부서별 담당업무 등 대회 성공을 위한 핵심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군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정기적인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상시 점검 체계를 운영해 보안사항을 신속히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정읍시 4-H연합회, 애육원에 후원 물품 전달

정읍시 4-H연합회(회장 유영빈) 소속 회원들이 지난 27일 관내 보육 시설인 애육원을 방문해 생필품과 식료품을 전달했다.

이번 나눔은 지역 내 아동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으며, 직접 준비한 후원 물품을 전달하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원들은 이번 위문을 통해 4-H 이념인 '지·덕·노·체(智·德·勞·體)' 정신을 실천하고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유영빈 회장은 "아이들이 따뜻함을 느끼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를 통해 더불어 사는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애육원 관계자는 "정성 어린 후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에게 큰 힘과 희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고창 해리면지사협, 취약계층에 영양간점 밀반찬 나눔

고창군 해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재규, 홍정목)는 지난 27일 어려운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영양간점 밀반찬 지원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이웃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한 밀반찬을 직접 포장하여 대상 가구에 전달했다.

또한, 반찬을 전달하며 생활 환경을 살피고 말벗이 되어주는 등 정서적 지지 활동도 병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홍정목 해리면장은 "바쁜 생업 중에도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모두가 행복한 해리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준규 기자

남원 JB청년회, 아동들에 치킨 50마리 기부

청년들 선한 영향력 확산

남원 JB 청년회는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 아동들을 위한 치킨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은 총 50마리의 치킨을 준비해 운봉읍 지역아동센터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으로, 아이들에게 따뜻한 추억을 선물하고자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됐다.

남원 JB 청년회는 "작은 정성이지만 아이들이 행복한 어린이날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종표 운봉읍장은 "지역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이 뜻깊다"며 "이러한 따뜻한 손길이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아이들에게도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JB청년회는 지역 내 봉사활동과 나눔을 꾸준히 이어오며 청년 중심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남원=김종원 기자



완주 청소년문화의집, 보드게임 챌린지 진행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들의 집중력과 전략적 사고력 향상은 물론 또래 간 건강한 경쟁과 협동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보드게임 도전(챌린지) 보컬 삼대장'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청소년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활동은 세 가지 보드게임을 중심으로 규칙과 진행 방식을 익히고 개인 및 모둠(팀) 활동을 통해 판단력과 협업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된 체험형 교육 과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드게임 규칙 이해, 개인 연습을 통한 숙련도 향상, 모둠별 대항전을 통한 집중력 및 순발력 강화 등을 포함했다. 특히 회차가 거듭될수록 난이도를 높여 참여 청소년들의 흥미와 몰입도를 지속해서 끌어올렸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평소 주말에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했는데, 보드게임 챌린지를 통해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가까워질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임실읍, 새봄맞이 환경정비 활동

읍장·직원 20여명 참여

임실읍사무소는 지난 24일 읍장과 직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임실읍 주요 시가지 및 청소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

이번 정화활동은 새봄을 맞아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다가오는 여름철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임실군은 오는 5월에 개최되는 임실N페스티벌과 임실N장미축제

등 대규모 축제를 앞두고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환경정비를 통해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했다.

임실읍장은 "이번 환경정비 활동은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임실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비와 관리로 깨끗한 임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실=한병열 기자



원불교 남원지구, 쌀 10kg 150포 기탁

원불교 남원지구는 28일 원불교 열린날(대각교제)을 기념해 "은혜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개최하고, 남원 참미 10kg 150포(한가액 500만원)를 남원시에 기부했다.

이번 행사에는 원불교 남원교당을 비롯해 남원시가족센터, 남원시청소년수련관, 남원시청소년문화의집 등 지역 내 여러 기관이 뜻을 모아 참여했으며, 기부된 쌀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원불교 남원지구는 매년 대각교

제를 맞아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으며, 올해도 이어진 "은혜의 쌀 나눔" 행사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뜻깊은 나눔으로 이어졌다.

남원교당 박지상 교감교무는 "은혜의 쌀 나누기 행사가 지역주민들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라며, 나 혼자 잘 사는 삶이 아닌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익산 동산동지사협, 난청 어르신 LED 초인종 지원

익산시 동산동이 이웃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에 나섰다.

동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8일 지역 취약계층과 난청을 겪는 고령자 등 32가정을 대상으로 '명동·빛나는 초인종 달아드리기'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동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신규 특화사업으로, 초인종이 고장 난 노후 아파트 거주 세대와 외부 소리를 인지하기 어려운 난청 고령자가 방문객 여

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소리와 함께 불빛이 작동하는 LED 초인종을 설치했다. 아울러 대상자의 생활 실태를 살피고 안부를 확인하는 등 돌봄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심현무 민간위원장은 "작은 변화지만 주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 개정면 '해오름펜션', 착한가게 가입

군산시 개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개정면 신규 착한가게 해오름펜션(대표 최형진)에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착한가정 캠페인은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자발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기부하여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나눔 캠페인이다. 가입자의 기부금은 개정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 특화사업 추진에 사용된다.

착한가게에 가입한 해오름펜션은 군산시 개정면에 소재한 농어촌 독채펜션으로 가족단위의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최형진 대표는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착한가게'에 동참하게 됐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봄철 부주의 화재 예방

- 담배꽂초 함부로 버리지 않기** (Do not throw cigarette butts carelessly)
- 음식을 조리 시 자리 비우지 않기** (Do not leave seats empty while cooking)
- 쓰레기 소각 및 논밭 태우기 금지** (Prohibit burning trash and fields)
- 외출, 취침 전 촛불 끄기 (발침대 고정 후 사용)** (Turn off candles before leaving or sleeping)

〈一事一言〉



공정성 무너진 경선, 결과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경선은 끝났지만 논란은 이제 시작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이 '이원택 논란'이라는 불씨를 안고 급속히 흔들리고 있다. 단순한 개인 의혹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안은 경선의 공정성과 정당성, 더 나아가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정면으로 뒤흔드는 구조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이원택 후보를 둘러싼 식사비 대납 의혹은 이미 고발로 이어졌고, 정치적·법적 판단의 대상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당은 비교적 빠르게 '무혐의' 판단을 내리며 논란을 정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그 판단 자체가 아니라, 그 판단이 적용된 기준이다. 같은 시기, 비슷한 의혹의 잣대 앞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김관영 지사는 소명 기회조차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채 속속결로 제명됐다. 반면 이원택 후보는 의혹이 제기되고 고발까지 진행된 상황에서도 비교적 관대한 판단을 받았다.

이 극명한 대비는 도민들에게 단순한

판단 차이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것은 곧 '기준의 부재'이자 '형평성의 붕괴'로 읽힌다.

정당이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절차의 공정성을 통해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기준이 흔들리는 순간, 그 어떤 결과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결과만 남기고 과정이 사라진 경선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관리된 선택'에 가깝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혼선이 특정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중앙당의 개입 방식, 의사 결정 구조, 그리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라지는 듯한 판단 기준은 이미 도민들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 "전북도지사"를 왜 중앙에서 정하는냐"는 한 도민의 탄식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정치는 신뢰 위에서 작동한다. 특히 경선은 그 신뢰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번 전북 경선은 신뢰를 확인하기는 커녕, 오히려 불신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누가 후보가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후보가 어떤 과정을 통해 선택됐느냐다. 그 과정이 흔들린다면, 선거에서의 승리 역시 공허한 결과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왜 같은 사안에 다른 기준이 적용됐는지,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도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납득 가능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없다면 이번 경선은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큰 정치적 후폭풍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공정성을 잃은 경선은 필연적으로 정당성을 잃는다. 그리고 정당성을 잃은 권력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 이번 논란을 단순한 일회성 갈등으로 치부한다면, 전북 정치의 미래는 더 깊은 불신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결과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아니라, 무너진 기준을 바로 세우는 용기다.

| 독자투고 |

함께 걷는 길, 집회의 권리와 보행권의 조화로운 동행



광장과 도로는 도심의 혈관이자 시민들의 일상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다. 때로는 이 공간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분출하는 '집회의 장'이 되기도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임에 틀림없고,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그 길 위에는 학교로 향하는 학생, 생계를 위해 바삐 움직이는 상인,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산책에 나선 평범한 시민들의 '보행권' 또한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도심 내 대규모 집회가 빈번해지면서 이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내 목소리를 높이는 것만큼이나 타인의 권리를 존

중하는 데서 완성된다. 이에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노력을 간곡히 당부드리고자 한다.

집회 주최자의 준법 의지가 신뢰의 시작이며, 집회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최측의 역할은 단순히 인원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공공의 질서를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인 것이다.

집시법을 지킨 집회가 말로 그들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담기게 된다고 생각된다. 하나의 예로 집회신고서 질서유지인명단은 단순히 명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보행로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받은 질서유지인을 배치해하고, 신고서 집회 장소와 범위를 엄격히 준수하여 차도와 보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시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숨구멍'을 열어두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과도한 확성기 사용은 메시지 전달을 넘어 시민들에게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음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오

히려 주주의 진정성을 높이는 길일 것이다.

이러하듯 집회와 시위의 목적은 결국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함이고, 그 과정에서 주변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면, 아무리 정당한 주장이라도 대중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회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과 점점더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이다.

집회의 권리가 집회참가자에게 소중한 만큼, 타인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도 소중하다 할 것이다.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집회 문화가 정착될 때, 광장과 도로는 갈등의 장소가 아닌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걷는 이 길 위에서, 권리와 책임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기를 기대해 본다.

익산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황호인

익산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황호인

사설

政爭에 눈먼 전북 정치권, '예산 확보' 끝내타임 놓치지 마라

전북특별자치도가 2027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상대로 총력전에 돌입했다. 김중훈 경제부지사들 필두로 한 전북도 관계자들이 세종정부청사를 찾아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지정과 수소 산업 육성 등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사업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5월 말은 각 부처가 기획예산처로 예산안을 넘기기 전 사업을 확정 짓는 사실상의 '운명의 달'이다. 지금 이 시기에 얼마나 많은 사업을 부처 예산안에 반영하느냐에 따라 내년 전북의 살림살이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작금의 전북 정치권 풍경을 보면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북지사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시비와 단식, 응급실 이송 등 극한의 내홍에 휩싸여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지도부의 소득 없는 외유성 출장과 지지율 정체로 제 역할을 못 한 채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 정치권 전체가 온통 제 밭그릇 헐기과 정쟁에 매몰되어, 정작 도민들의 미래가 달린 국가 예산 확보라는 지상 과제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모양새다.

행정이 아무리 발로 뛴들, 중앙부처의 문턱을 넘고 기획예산처의 갈밭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의 입체적이고 강력한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의무지출 상

승으로 국가 예산 따내기가 '마른 수건 짜기'보다 힘든 상황에서, 전북 정치권이 제 한 몸 건사하기 위해 내부 총질이나 하고 있을 여유가 어디 있는가. 민주당의 경선 과정과 야당의 무능이 불러온 '정치 실종'의 피해는 고스란히 175만 도민의 뒤통으로 돌아오고 있다.

정치는 예산으로 말하고, 행정은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 지금 전북에 필요한 것은 '누가 공천을 받느냐'는 계파 논리가 아니라, '단 1원의 예산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가'라는 민생의 절박함이다. 지역 정치권은 이제라도 정쟁의 늪에서 벗어나 도정과 원팀(One Team)을 이뤄 예산 확보전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중앙부처 단계에서부터 전북의 핵심 사업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다.

전북자치도의 자립과 미래 성장을 견인할 국가 예산 확보는 도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다. 정치적 소음 속에 정작 중요한 민생 예산이 소외된다면 도민들의 배신감은 견줄 수 없을 것이다. 5월 한 달, 전북 정치권은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줄이 아닌 도민들의 생명줄인 '예산 보따리'를 지키기 위해 세종과 국회로 달려가야 한다. 정치가 민생의 발목을 잡는다는 오명을 씻을 기회는 지금뿐이다.

오늘의시

봄이여, 4월이여 / 조병화

하늘로 하늘로 당겨오르는 가슴 이걸 생명이라고 할까 자유라고 할까 해방이라고 할까	하늘에 가득히 풀어놓는다
4월은 이러한 힘으로 겨울 내내 움츠렸던 몸을 밖으로, 밖으로, 인생 밖으로 한없이, 한없이 끌어내어	멀리 가물거리는 것은 유혹인가 그리움인가 사랑이라는 아지랑인가 잊었던 꿈이 다시 살아난다
	오, 봄이여, 4월이여 이 어지러움을 어찌하리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4월 29일 수요일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영리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팔백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8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고창군로컬JOB센터, 2026년 지역 일자리 도약 본격화

고창군로컬JOB센터(센터장 양치영)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도농상생형 고용플랫폼 조성 프로젝트(상용직 및 농가 일자리 채용연계)'와 '2026 고창군 재도약 기업(UP)지원사업Ⅲ(기업지원)' 2개 사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추진한다.

올해로 8년 차를 맞은 센터는 고용노동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전북산학융합원이 함께 운영하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단순 고용서비스를 넘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편집자주)

■2025년 성과 기반, 지역 일자리 허브 역할 강화
고창군로컬JOB센터는 2025년 한 해 동안 고용서비스 315명, 농가 연계 6,564명 등의 성과를 거두며 지역 고용 안정에 기여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간식잡(JOB)고, 행복잡(JOB)고', '도농상생형 직거래장터', '고용환경개선', '직무역량강화교육' 등 다양한 사업과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채용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고용 성과를 창출했다.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직자의 취업 기회 확대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하며 지역 일자리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했다.

■도농상생형 고용플랫폼 조성 프로젝트 : 맞춤형 일자리 지원
올해는 기존 사업을 더욱 고도화하여 기업과 구직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면접수당 지원사업, 동행면접,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등 구직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며, 농가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인력난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간식잡(JOB)고, 행복잡(JOB)고', '도농상생형 직거래장터' 등 기업, 구직자, 농가 등 모두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과 구직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농가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직무역량 강화교육(AI, 인사&노무 등 교육, 3TON미만 기계차 이수)'을 통해 근로자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며, 관내 중소기업의 '산재예방 컨설팅'을 통해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6 재도약 기업(UP)지원사업Ⅲ : 기업 성장 및 고용 안정
재도약 사업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고용유지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고용유지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업에는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구직자에게는 지역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정착지원금을 지원하여 금



전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고용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기업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및 복지환경을 개선을 통해 쾌적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여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 인재들의 장기근속을 위한 고용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맞춤형 고용 생태계 구축
고창군로컬JOB센터는 지역 특성과 산업 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업 수요조사 및 현장 중심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고인돌창출단, 운영위, 서포터즈 등 고창군 일자리 창출 및 구직자 발굴을 위한 위원을 위촉하여 지속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구직자와 기업 간 원활한 일자리 매칭을 위해 채용설명회와 채용박람회 등 다양한 현장 중심의 취업 연계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양치영 고창군로컬JOB센터 센터장은 "2025년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좀더 구직자와 구인 기업간 효율적인 맞춤형 프로그램 및 취업연계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고용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군로컬JOB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지역 밀착형 고용서비스 강화로 지역 일자리 허브 역할 수행



선거 준비는 빠를수록 유리 합니다.
홍보물의 완성도가 후보의 첫 인상을 결정 합니다.

Design Plan



Digital photography



Editorial Design



Printing



6.3 지방선거 ONE-STOP선거 홍보 제작팀

유한회사 준테크 TEL-063-226-5888
E-Mail_jhchoi3075@daum.net

대흥정판사 TEL-063-254-0056~7
E-Mail_hi056@hanmail.net

아트엔포토 TEL-063-251-0987
E-Mail_ap0987@daum.net